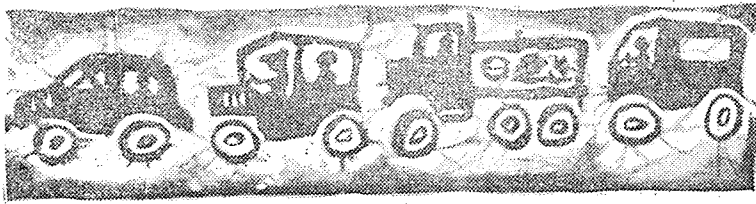


이 땅의 주요 뉴스와 시험의 주변



□ 附加稅 免稅사업자規程 施行1개월여 當局 啓蒙부족으로 醫療機關 납득못해

國稅廳은 附加價值稅면세사업자 수입계산서작성 및 교부사무취급규정에 의거, 醫療業등은 간이수입계산서를 8월 1일부터 발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미 이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醫療人들에 대한 계몽부족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납득치못해 簡易計算書발행 교부에 차질을 빚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國稅廳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의 판매및 지급에 대한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수증 주고 받기운동의 생활화를 기하기위해 醫療業者를 비롯 변호사 세무사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거래시마다 수입계산서 또는 간이 수입계산서를 작성 8월 1일부터 교부토록 하고있는데 醫療界 특히 開業術에선 이 규정을 잘모를 뿐더러 작성및 교부요령등을 제대로 몰라 간이수입계산서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간이수입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장기간 작성교부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善意의 醫療人들이 피해마져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國稅廳은 최근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등에 의한 진료비청구서소정 청구서식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영수증이 없으므로 단순한 진료비청구서가 간이수입계산서의 기능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간이수입계산서를 작성 교부토록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齒協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간이수입계산서 발행에따른 요령을 각市道支部에 시달, 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 국민總和에 全力邁進도 서울齒醫會 사회淨化團合大會 개최

서울市 齒科醫師會는 지난 30일 서울齒大 강당에서 社會淨化團合대회를 갖고 모든 人類의 口腔保健관리에 헌신적으로 봉사, 국민총화를 위해 전력 매진할것을 결의하고 주변정화운동을 적극전개하고 醫療不條理제거에 적극 참여 할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경채신운동에 협회 구성원으로 참여의식을 진작시키고 전국민에의 파급을

적극추진키위해 개최된 이날 서울齒醫會의 사회정화단합대회에서는 「安保및 社會淨化」(김영수·통일원 상임연구위원)의 강연에 이어 내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사회정화운동 등에 적극참여키 위해 ①술선수벌하여 근검절약운동에 앞장서며 ②주변정화운동과 의료부조리거제에 적극참여 추진하고 ③불우이



□ 保健團體협의회 醫療界서 대두

최근 醫療界 일각에서는 醫協, 齒協, 漢醫協, 看護協會 등 보건인 단체들과 共同協議體 구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르게 수립, 집행되도록 공동의 조사연구사업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조를 취할수 있는 제도의 확립론이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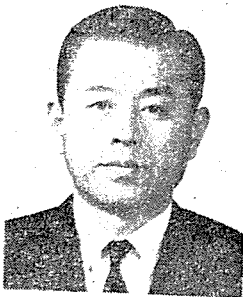
이같은 보건인 단체를 총망라한 協議體의 구성은 최근 醫協이 대한약사회와 공동보조를 통해 의약분

업에 관한 사항과 의료일원화에 관한 내경부건의안을 작성 공동명의로 발표한후 이를 더욱 확대 汎醫療界로 확산을 구상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건인단체간에 대화와 공동연구를 통해 협조체제를 굳히고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에 큰 계몽을 할수 있도록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FDI總會 10월 22일 開幕

한국代表團 金仁哲회장등 13명 參加예정



<金仁哲 회장>

FDI는 오는 10월22일부터 28일

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제65차 世界齒科會議 총회가 22일 오후 2시와 28일 오전 9시 로얄 오크호텔 볼룸에서 각각 개최된다고 齒協에 통고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金仁哲齒協회장(A PDF부회장)등 13명의 대표단이 참가하게 될 이번총회의 日程은 다음과 같다.

▲ 10월20일 = 齒學연구위원회 · 口腔상태分類統計위원회 · 齒科器材藥品위원회 · 公衆齒科衛生위원회.

웃을 돕고 국민총화를 위해 전력배진하며 ④투철한 반공정신으로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고 ⑤모든 인류의 구강보건관리에 헌신적으로 봉사할것을 다짐.

▲ 21일 = 齒科教育위원회 · 齒科診療위원회 · 軍陣齒科위원회 · 學集會위원회.

▲ 22일 = 公報위원회 · 總會A(회장 리셉션및 회장디너파티)

▲ 23일 = 學術행사 · 展示場 오픈 · 開會式

▲ 24일 = 제 1 主題강연「口腔환자에 의한 接者」· 學術행사

▲ 25일 = 제 2 主題강연「疼痛 除痛의 새로운 展望」· 學術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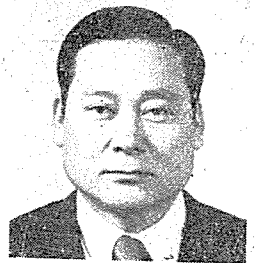
▲ 26일 = 제 3 主題강연「구강위생과 생활수준」·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

▲ 27일 = 라틴 아메리카지역 회의 · 유럽지역회의

▲ 28일 = 總會B

□ 申旻澈부회장 代表로

14회 日齒學會총회代表團構成



<신민철 부회장>

齒協은 오는 10월15일부터 18일까지 東京 武道館에서 개최되는 제 14회 日本齒科醫學會총회에 申旻澈 부회장을 대표로 卞鍾秀의장 尹興烈공보이사를 부대표로하는 대표단을 구성 과전기로 했다.

매3년마다 세계 70여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 총회에 齒協대표단은 24명의 대표가 참가, 한국의 치과의학현황발표, 한·일양국의 전문분야에 대한 토의등을 통해 치과의학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 제118차 ADA總會

10월19일부터 마이애미서 開催

제118차美國齒科醫師協會(ADA) 총회가 오는 10월9일부터 13일까지 마이애미비치 「콘벤션센터」에서 齒科醫業의 장래와 그 責任을 主題로 개최된다.

이 총회에서는 1천개 이상의 學術연계 임상강연 세미나네블크리닉

을 비롯 機材 전시회등 다채로운 學術행사가 벌어지며 특히 올해 學術 발표회에선 救急처치방법에서부터 근대적 齒科療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臨床발표가 풍부할것이라고 한다.

□ 齒科衛生士 가름勤務경우 齒石除去等可能

保社, 有權해석 醫療法施行令 제24조등에 의거

保社部는 齒科醫療기관에서 齒科衛生士를 가름하여 근무하는 看護員 및 看護補助員의 경우, 齒石除去 또는 齒牙 및 口腔疾患에 방을 위한 의료보조업무를 행할수 있다고 有權해석을 내렸다.

保社部는 지난 7월 齒協이 치과의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 치아노출면 및 치경부분에 부착된 齒石을 除去하는 보조행위와 치아·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의료보조업무를 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한 회시에서 치과의리기관에서 齒科衛生士를 가름하여 근무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의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保社部는 지난 7월16일자 회시(의제 1420~9779호)에서 齒石除去는 치아 및 구강질환예방의 의료보조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醫療技士法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해 齒科衛生士업무에 속하므로 업무한계가 다른 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은 행할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醫療法시행령 제24조1항3호 규정과 간호보조원·의료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치과의리기관에서 치과위

생사를 가름하여 근무하는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의 경우, 치과위생

□ 大韓口腔保健學會 主管 教育開發워크샵서 대두

齒科衛生士 教育統一化로 地域社會요구에 副應해야

齒科衛生士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 齒科衛生士 교육과정에서 교육훈련내용과 절차 과제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이 크게 지적돼 이의 統一化가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口腔保健學會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3일간 구강보건학계인사를 비롯 치과위생사교육기관 관계책임자등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스호텔에서 개최된 齒科衛生士 교육개발 워크샵에서는 각치과위생사교육기관에서의 교육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이 크게 지적됐다.

①齒科衛生士의 교육개발의 목적 및 일반원칙 ②교육개발 절차과정등을 나누어 분석 검토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변천하는 현재의 한국지역사회와 미래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齒科衛生士를 양성할수 있는 齒科衛生士교육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과 각치과위생사교육기관의 교육훈련내용을 통일, 합

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保社部는 이 유권해석에서 당해치과업무보조에 능숙하지 못할 때에는 自體補修교육등으로 그 능력을 보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齒協은 지난 8월25일 이같은 사실을 各市道支部에 통고, 전회원에게 주지시켜 의료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했다.

그런데 이문제는 76년도 제25차 定總에서 연구검토사항으로 77년도 제26차 定總에선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집행부에 위임됐던 사항이다.

리적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등의 교육개발 목적이 설정됐다.

또한 教育開發 절차과정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의 활용분야와 업무를 분류하고 이에따른 ①교육과정 ②임상실습내용 ③치과위생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등이 세밀히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 치과위생사교육기관이 부속치과 의리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 會費 5백16만원 收納

25일현재 8개支部서 納付

8월25일 현재 齒協會費는 총 5백16만3천8백10원이 납부됐다.

지난 7월 서울·충남·경북·충북등 4개支部에 이어 8월들어 전남이 55만8천7백20원(과년도회비 9천6백원 포함) 강원이 31만2천5백원

군진 해군분회서 6만8천7백50원 전북이 4만원등을 납부, 회비수납은 총 5백16만3천8백1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3개支部중 8개支部에서 會費를 납부해왔으며 부산·경기·경남·제주·공직齒醫會등 5개支部에서는 會費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 서울齒醫會連席회의서 지적 “當局行政劃一化못이뤄”
突出着板問題, 簡易稅金計算書問題等

최근 齒科醫療界 開業街에서는 당국의 돌출간판에 대한 규제조치와 8월1일부터 시행토록된 醫療機關에서의 간이세입계산서 발부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서울市齒科醫師會는 13일 무역회관에서 금년도 제 2회 理·監事 및 各區會長연석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各區齒醫會 회장들은 당국은 의료기관등의 돌출간판 규제에 있어 各地域別로 相異, 어떤 지역에서는 조건부로 신규허가를 해주는가하면 허가기간이 남아있는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경신을 해주는등 劃一化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당국과협의, 의료기관의

各市道支部의 會費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2백50만원 ▲충남=46만8천원 ▲경북=84만7천6백80원 ▲충북=36만8천1백60원 ▲전남=55만8천7백20원 ▲강원=31만2천5백원 ▲전북=4만원 ▲군진(해군)=6만8천7백50원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전처럼 허가해주도록 촉구했다.

8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간이세입계산서 발부와도 관련이의 처리·기장문제등을 잘모를뿐 아니라 치과의원서 거래하고 있는 材料商·技工所등에서도 세금영수증 발부를 기피할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등을 기피로 齒科器材價마저 올려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에 따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齒醫會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의 회무보고를 비롯 각구치의 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등을 보고했다.

□ 全國保健所 2백個所로 늘어

保健醫療網의 중추기관인 保健所가 드디어 2백개소를 돌파하게 됐다.

이는 서울市가 3월1일을 기해 永登浦區를 나누어 江西區를 新設한데 이어 大田市가 市內行政區域을 개편, 南區를 新設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의 保健所는 13개소 (鍾路·中區·東大門·城東·城北·道峰·西大門·麻浦·龍山·永登浦·冠岳·江南·江西)가 설치운

영되며 大田은 현재의 45個洞을 2個區로 나눔에 따라 保健所 1個所가 늘어 전국의 保健所는 1백98개소에서 2백개소로 늘어나게됐다.

□ 한국齒科界視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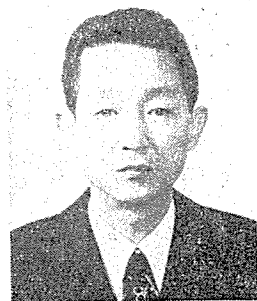
버마保健省 킨 치무담당관 離韓

버마保健省齒務담당관「킨몽원」씨가 지난 8월31일 來韓, 우리나라 齒科醫療界를 시찰하고 지난 12일

離韓했다.

정부의 중립국 외교방안의 일환으로 來韓했던 「킨」담당관은 滯韓기간중 外務·保社部를 비롯, 서울·연세·경희·조선치대부속병원등의 牙科기관 齒協새마을齒科診療院 新興齒科産業 턱키 치약공장, 서울·부산 개인齒科醫院등 우리나라 齒科界 전반에 걸친 시찰을 마치고 『한국의 치과의료의 높은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 齒協 새마을齒科診療院 開院 1주년 紀念행사 準備



<이응우 진료원장>

齒協은 오는 10월15일 새마을齒科診療院 開院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거행키로했다.

齒協은 지난 7일 정기이사회서 이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키로 했는데 齒協은 새마을 치과진료원의 개원1주년을 맞아 同診療院의 시설을 보다 보강하는 한편 합리적인 운영방안등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그런데 새마을齒科診療院은 지난 76년10월15일 개원이래 지난 8월31일까지 총 7백9명의 齒科醫師가 동원, 2천4백46명의 환자에게 발치 6백76 종전 9백56 치료 1천3백75 기타상당 2백33례등 총 3천2백40례의 진료실적을 올렸다.

□ 10월 3일에 定總
器材商協, 라이온스호텔서開催



<朴鍾允會長>

대한齒科器材商協會(회장·朴鍾允) 제 6회 정기총회가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라이온스호텔 5층회의실에서 개최된다.

同協會는 지난 8월 열린 이사회에서 총회일정을 이같이 결정하고 총회상정안건으로 ①임기만료에 의한 임원개선 ②78년도 豫算案심의 ③入會金에 관한건 ④社團法人인가 신청에 관한건 등으로 정하고 표창대장자 및 총회책임부서등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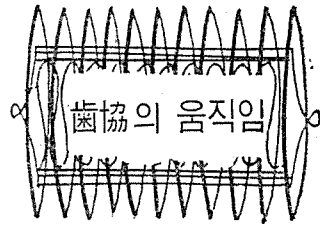
한편 이날 理事會에선 小賣價均一化(正札制)문제를 논의 소매상친목회에서 토의결정한후 다시 심의키로 했으며 未加入輸入商의 협회가입에 문호를 개방키로하고 公同購入納品에 관한건은 임원진이 齒協및 齒技協등과 절충키로했다.

同協會는 오는 20일 최종이사회에서 會務·財務등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했다.

오는 총회에서 표창할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感謝牌 = 李承婁, 盧基祥

▲功勞牌 = 朴漢圭, 朴淳淳, 李興世, 全洪基.



8월 16日 齒醫新報145호및 協會誌 7月호 發送

8월 22日 第29回 綜合學術大會 開催및 參加者 申請公文 各支部에 發送

8월 25日 正午12時 中區은경에서 설탕덜먹기운동 사업계획을 검토

8월 31日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원및간호보조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각지부에 발송

9월 6日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여부 보고 각지부에 발송

9월 6日 각보도기관에 새마을치과진료원사업 홍보협조의뢰 공문발송

9월 7日 오전 8시 30분 협회회의실에서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위원회 보고가 있는다음 안건을 처리하였음.

각위원회 보고

가) 총무위
1. 새마을치과진료원 사업실적보고

나) 심사위
1. 7월 16일 보건사회부로부터 간호원및 간호보조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해석을 받아 각시도에 이첩하였음

다) 국제위
1. 일본치과의사회로부터 학회참석조정장을 받아 현재수속착수중임
2. 세계치과연맹총회 참석자 여권도수속중임

3. 세계치과연맹총회 77년도 회비 281불도 곧 송금해야겠음
공보위

1. 8월15일 치의신보 145호를 발송했고 9월 1일 146호를 발송했음

2. 설탕덜먹기운동도 계속전개할 계획임

자재위
일부 치과기계의 규격제정을 위해서 문헌을 작성중에 있음
회장

1. 현재 설탕덜먹기운동은 곧 계몽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2. 치과용금 구입문제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대책도 수집해야하겠음.

3.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의료업자도 간이수입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회원에 알리도록 해야하겠음

4. 의료보험조합과 보철에 관하여 확인계약을 체결하는 회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행위도 시정토록 해야하겠음

의안
1. 새마을치과진료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문제

담당부회장 및 총무이사에게일임
2. 일본치과의학회 참석대표단 선정

9월 12日 각지부장에게 수가기준 위배계약 행위저지에 관한 공문 발송

□ 새마을 研修教育 마쳐
서울齒醫會 各區齒醫會長들

서울市齒科醫師會 산하 9개區齒醫會 회장들이 그동안 새마을 연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지난 5월12일부터 시작된 各區齒醫會長 새마을연수교육은 안양근교 새마을연수원에서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李豊基(동대문) 李往鳳(성북)

具秀會(성동) 朱洛林(서대문) 玄天燮(도봉) 林采均(종로) 趙漢潏(마포) 李繼(중구) 李鍾雨(관악) 회장 등 9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2월 金基鎬 용산구회장이 입소 새마을 교육을 받게 된다.

□ 81년까지 公衆保健장학생 7백명 모집 계획

保社部는 지난달 공중보건장학에 관한 特例法에 의한 年度別장학생 모집계획을 확정, 이를 各醫大및 齒大등에 통보했다.

保社部는 年度別 공중보건장학생 모집계획에 의하면 77년도의 2백명

에 이어 78년 2백명, 80년 1백20명 80년 1백50명, 81년 50명등 모두 7백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保社部는 또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취지내용등을 油印物로 마련, 醫大·齒大학생들에게 배포했다.

□ 10월 9일 培材校庭에서
서울齒醫會 제 5회體育大會 개최

서울市齒科醫師會 (회장·池憲澤)는오는 10월9일 培材체육대회를 갖는다.

제 5회째 맞는 이번 회원 체육대회는 출다리기 달리기등 여러게임을 벌이는데 중배에 하던 축구·배구등 구기종목은 경비부담이 크고 일부회원에 참여가 국한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번 대회부터는 하지않기로 하였다.

체련대회 장소는 배재고등학교



< 76年度 서치 體育大會 >

정으로 정하고 13일 열린 各區齒醫會長연석회의에서 이에따른 문제를 협의했다.

□ 한국메디카 새마을 齒科診療院에 無料診療用藥品 기증

한국메디카(대표·朴海龍)는 지난달 30일 齒協이 영세민들의 齒科 無料診療를 위해 지난해 10월 開院 都市영세민들의 구강질환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齒協 새마을齒科診療院 무료진료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뜻에서 치료용약품 진통·소염제「푸로페니드」5백칼셀과 처방전 매모지등을 齒協에 기증해 왔다.

이날 한국메디카는 이약품을 새마을齒科診療院 金榮基원장(齒協 총무이사)에게 전달하면서 앞으로 매달 한번씩 同診療院에서 사용할 藥品기증을 계속할것도 약속했다.

그런데 同社는 지난 7월 齒協의 하기 무료진료사업에도 협조, 진통소염제「푸로페니드」4백칼셀과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1백칼셀등을 기증한바도 있다.

□ 齒科醫學社主催齒科人の 밤盛了今年齒科醫學 金賞 閔·金·李氏에게 授與

치과의학사「월간치과계」주최 77년도「치과인의밤」이 지난 9일 오후 6시 신흥치과산업 齒苑에서 전국 2백여 치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의 치과인의밤엔 치과의료계 발전에 공이 큰 치과인사에게 주어지는 치과의학사 금상에 인생무로, 진료를 실시한 閔丙一부교수(서울메치대)와 구강보건협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국민구강보전에 앞장선 金周煥원장(김주환치과의원장) 우리나라 치과관의관으로서 첫번째 장성으로 군진치의학 발전에 공이 많았던 李載澈원장(이재철치과의원장)등 3명에게 수여 되었고. 상호제약, 신흥치과산업(주) 등이 후원했다.

**□ 2學期獎學金 5명에게
서울齒大同窓會 5만원씩 支給**

서울齒大同窓會(회장·徐永圭)는 지난 18일 齒大學長室에서 성격이 우수한 이희원(본4년)양의 3명에게 각각 5만원의 獎學金を 주었으며 同窓子女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池憲澤(서울齒醫會) 회장의 영애인 에(본2년)양에게 전달됐다.

**□ 獎學證書 전달
齒醫景福同門會서 母校生2명에**

齒科醫師 2백여명으로 구성된 齒科醫師 景福同門會(회장·鄭淳慶)에서는 지난 8월30일 서울齒大學長室에서 母校계 학생인 박수영·박규현군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각각 전달했다.

75년도에 창설, 景福同門齒大在學生으로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은 서울齒大에 이어 慶熙 延世齒大학생에게 도 주어질 것이라 한다.

**□ 日本 東京齒大病院長
田島篤治씨 來韓**

慶熙齒大는 16일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日本 東北齒大 田島篤治 교수(同附屬病院長)를 초청, 補綴學에 대한 特講을 갖는다.

**□ 延世齒大 學生課長에
金鍾悅씨 임명**

延世齒大는 學生課長에 金鍾悅(구강 진단과) 教授를 9월 1일자로 발령했다.

**□ 申告率 81.1%
금년도 藥師申告 結果**

금년도 藥師定期申告결과 申告의

무자 2만7백18명중, 1만6천8백10명이 신고하여 81.1%의 申告率을 보였다.

藥師法제 6 조 및 同施行規則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일~31일까지 실시된 定期申告집계에 의하면 작년도 신고율 81.5%에 비해 0.4%가 오히려 떨어졌다.

保社部の 결과 分析에 따르면 地域別 分布현황은 서울과 釜山에 전체의 61.3%인 9천8백41명이 편중되어 있으며 市와 郡지역별 분포는 86.1%와 13.9%로 나타나 市지역이 월등히 높았다.

한편 年齡別로는 30~39세 郡이 8천9백88명으로 53.5%를 차지, 가장 많고 다음이 29세 이하 郡이었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70세 이상은 0.1%에 불과했다.

**□ 月例學術집담회
齒科矯正學會**

대한齒科矯正學會(회장·徐廷勳)는 지난 19일 덴탈가든에서 월례 학술 집담회를 갖고 『成長豫測과 矯正환자관리』란 연제로 中島榮一郎(日本東京醫科 齒科大學)씨의 강의가 있었다.

**□ 蘇鎮文교수 特講
小兒齒科學會**

대한小兒齒科學會(회장·梁精康)는 지난 5일 연세치과에서 제 3회 學術집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美國 시카고 이리노이 大學에 재직중인 蘇鎮文 교수를 초청, ① Mixed denfition Analysis ②미국 소아치과학계에 근황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 釜山市齒醫會 定期理事會

日 時: 1977.8.17. 下午 7時 30分
場 所: 本會 會議室

參席者: 김상찬, 송형보, 강덕인, 주옥엽, 양승면, 김정복, 김원우, 김봉호, 정소영, 상기증

經過報告 및 決議事項

상기증 總務理事로부터 事務室 移轉에 對하여 現在 總무치과가 新築關係로 부득히 급히 移轉함으로 事務室을 現會長宅으로 移轉하였다는 요치의 보고가 있었다.

參席者 全員이 會館建立에 對한 좋은 方案과 會館建立에 전초기지인 會事務室을 마련할려고 노력한 現집행부에 感謝를 表하고 現 事務室을 會館建立 委員 員名義로 正式 300萬원에 임대키로 單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한편 그間 本會會務 全般에 對하여 經過報告가 있었으며 本會 發展에 對하여 많은 助言과 격려가 있었다.

全會員은 執行部の 事業에 積極 協調하여 보다 많은 發展을 바라며 現執行部 역시 더욱 알차게 業務를 推進하여 釜山市 齒科醫師會를 發展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괴산군 일대에서 診療봉사
忠北齒醫會 會員 8名이**

忠北齒醫會(회장·金學聖)는 지난 1일 괴산군 청천면 부평리, 송면리 일대 주민 1백76명에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무료진료봉사에 참여한 치과 의사는 金學聖회장을 비롯, 8명의 齒科醫師가 診療에 참여했다.

